

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

# 2004年度 主要業務 推進計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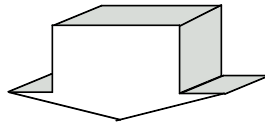
---

## 業務 推進方向과 重點 推進施策

### 推進 方向

#### 합동위령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사후관리

- 상징적인 추모공간 조성과 국민화합
-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답사공간 활용



### 重點 事業

- ① 거창사건희생자합동위령사업 마무리
- ② 거창사건추모공원 사후관리
- ③ 명예회복사업 추진

꿈과 希望이 있는 살기좋은 居昌

# □ 거창사건희생자합동위령사업

- ◆ 특별법에 의하여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해온 위령 사업은 2004년 4월초 준공을 앞두고
- ◆ 예정공정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있으며 철저한 공사감리감독으로 시설물 품질 확보에 기여함.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1998년 ~ 2004년 (계속비 사업)
- 위치 :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, 과정리, 덕산리 일원
- 조성면적 : 162,425m<sup>2</sup> (약 49,133평)
- 사업내용 : 묘역정화 및 위령사업
  - 토목공사 : 합동묘역 조성 (719기), 희생장소 보존 (3개 지구)
  - 건축공사 : 위패봉안소, 위령탑, 일주문, 역사교육관, 안내소
- 사업비 : 19,282백만원 (국비 18,952백만원, 지방비 330백만원)

## □ 추진계획

- 토목·조경 제3차공사 추진 : '03.2.3~'04.4.2
  - 점토블럭 포장, 석재·세라믹타일 붙임, 보행로 아스콘 포장
  - 줄떼심기, 한식자연석 담장 쌓기
  - 조경시설물 설치
  - 희생자 묘지 이장
- 야생화동산 조성 : 사업비 50천원으로 2월말 식재
- 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경수목 관리, 초화류 보식

## □ 기대효과

- 생명과 인권·평화를 사랑하는 의미 있는 현대사 답사공간
- 향토문화와 연계된 지역의 명소로서 관광자원화

## ② 거창사건추모공원 관리

---

- ◆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합동묘역은 단순한 유족들의 개인묘지 차원을 넘어 3.15·4.19·5.18국립묘지에 준한 시설로 관리
  - ◆ 준공식은 최소의 경비로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화합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
- 

### □ 사업개요

- 준공식 및 부대행사
- 추모공원 홍보
- 거창군 직영으로 사후관리 : 국비 466백만원 확보

### □ 추진계획

- 준공식 및 준공기념 추모행사 : '04년 4월 하순경
- 팸플렛 및 안내책자 우송 : 현대사 연구단체 및 전국의 각 대학교
-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현장에서 개최
- 청소년 수련관 이용하는 전국의 학교에 코스 안내  
청소년수련원 → 수승대 → 박물관 → 거창사건 추모공원
- 야외 광장 대여 및 역사관 영상실 대관 : 사회단체의 문화행사
- 묘역개방 09:00~18:00(동절기 17:00까지)
- 위패봉안소 및 역사교육관·전시실 관람 09:30~17:00(동절기 16:00까지) ※ 관람료는 없으며, 매주 월요일은 점검·청소·보수를 위하여 휴관

### □ 기대효과

-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
- 합동묘역은 국립묘지에 준한 시설로 관리

### ③ 거창사건 명예회복사업 추진

---

- ◆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으나 누락된 171명의 구제를 위한 법 개정 추진
  - ◆ 유족회의 각종 위령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명예회복에 기여
- 

#### □ 사업개요

-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 : '03.10.14
- 제53주기합동위령제 및 제16회 추모식
- 제5회 거창사건 학술발표회

#### □ 추진계획

- 법개정 추진 : 무연고 사망자 171명은 유족회에서 신고
-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
  - 개최일자 : 2004.9.12(일, 음 9.28)
  - 2005년도부터는 유족회와 협의하여 추모식만 개최하도록 추진
- 학술발표회 : 마지막 년도로서 총체적인 정리

#### □ 기대효과

- 특별조치법 제5148호에 의한 명예회복으로 국민화합에 기여
- 각종 행사를 통하여 거창사건의 진실을 이해하고 현대사 학습의 기회를 제공

○ 준공식 및 준공기념행사

- 장소 : 위령탑 앞 추모광장

- 시기 : 2004. 4월 중순경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

- 내용

유족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: 유족, 지역민, 직능대표, 소외계층, 기관단체장, 도지사,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참석조치

정부의 관심도 제고 기회로 활용 : 정부의 주요인사(국무총리, 행자부장관)가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

한풀이 위주의 행사를 탈피, 지역단위 축제행사로 승화 : 위령공연, 지역문화행사, 학술대회 등과 연계